## 월요논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엔날레

**김 영 호**
중앙대 안성캠퍼스 발전기획단장·미술사가

코로나 정국으로 비엔날레가 전환점에 서 있다. 몇몇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 내었으나 몇몇은 당국의 방역시책을 따르며 내년으로 연기했다. 5회를 맞은 '창원조각비엔날레'는 9월 23일 개막해 46일간 5회 행사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1일 막을 내렸다. 10회를 맞는 '부산비엔날레'도 9월 5일부터 11월 8일까지 65일 동안 열리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내년 2월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내년 9월로 개최를 각각 연기했다. '대구사진비엔날레' 역시 본전시를 내년으로 미뤘다. 2017년 첫 행사를 치른 후 파행을 겪고 있는 '제주비엔날레'는 2회 행사를 4년 뒤인 내년으로 연기했다 한다.

문명사적 전환기로 불리우는 오늘날 비엔날레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의 조직이나 운영방식으로는 도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지역정체성을 강화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따위의 의미만으로는 뿌리뽑힌 식물처럼 시간과 더불어 고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러저러한 문제의식 속에서도 비엔날레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의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비엔날레 자체가 지닌 실험적 속성이 주는 활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엔날레가 파생하는 사회적 기여도가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비엔날레의 실험적 속성이란 동시대의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작가와 작품들을 통해 삶의 문제들에 대해 논쟁하고 공유하는 일이다. 문화 실험실로서 비엔날레는 예술이라는 매개를 활용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파생시킨다. 비엔날레의 이러한 특성들은 소장품 중심의 법령 속에서 움직이는 미술관의 역할과 차이를 보인다. 비엔날레는 현재 이곳을 사는 다양한 삶의 주체들과 소통하며 자신이 서있는 장소와 존재 방식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비엔날레가 지닌 사회적 기여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세계관을 선도하는 역할에서 발견된다. 작금의 우리에게 비엔날레가 필요한 이유는 분열과 대립 그리고 편견과 오만이 곳곳에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청소년 자살률, 산업재해 사망률, 저출산율, 직업만족도, 교육비 등이 세계 최고이며 타국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지식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모더니즘 시대의 '야만적 경쟁교육'이 불러온 결과라 진단한다. 국민소득 3만불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고 정치 민주화를 이룩한 기적의 나라지만 노인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치고 있다. 비엔날레는 이러한 역설과 모순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추어 주는 가장 강력한 문화 장치로 존재한다.

문명사적 전환기로 불리우는 작금의 상황에서 비엔날레는 문화적 대안이다. 비엔날레는 이러한 동시대의 이슈들을 예술로 풀어내는 유일한 대규모 국제미술제인 것이다. '창원조각비엔날레'가 내세운 주제인 '비조각-가볍거나 유연하거나'는 물론이고 '부산비엔날레'가 문필가와 음악가들을 초대해 치룬 '열 장의 이야기와 다섯 편의 시'는 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보여줬다. 이 두 비엔날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엔날레가 가야할 향방을 제시해 줬다는 생각이다.

## 사설

# '돈 먹는 하마' 대중교통, 개선대책 없나

제주지역 대중교통 활성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한 대중교통체계가 개편한지 3년이 넘었으나 지지부진합니다.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체계가 30년만에 대수술이 이뤄졌으나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어 그렇습니다.

최근 대한교통학회 제주지회와 제주교통연구소가 개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3년 성과와 과제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조항웅 대한교통학회 박사가 발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3년 경과 발전 방향'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내 대중교통 이용객은 2017년 5638만1344명, 2018년 6245만2899명, 2019년 6484만5997명입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8% 성장했지만 지난해는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이용객은 코로나19 사태로 2450만3891명을 기록, 1년 전보다 62.2%나 급감했습니다. 그렇다고 효율성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운행 1회당 평균 이용객은 개편 전 40명에서 개편 후 29명으로 줄었습니다. 유료비율도 개편 전 62.0%에서 개편 후 57.5%로 쪼그라들어 재정 손실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면서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버스준공영제까지 도입하면서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인 버스 대수의 경우 개편 전 585대에서 811대로 38.6%(226대)가량 대폭 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이용객은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만큼의 성과는 커녕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지만 개선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아 답답합니다.

# 대정에 선보일 전국 최초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시 대정읍에 연중 무휴로 진료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의원'이 선보입니다. 지역사회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인 민관협력의원 사업은 행정에서 부지와 시설, 고가의료장비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민간의원과 약국에선 야간·휴일을 포함한 365일 상시 진료를 조건으로 장기 임대·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첫 사례인 민관협력의원을 대정읍에 세우는 이유는 응급의료 접근성 취약으로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시내권 응급실로 몰리는데다 그에 따른 많은 시간·경제적 비용 때문입니다. 도내 읍면 경증(비응급)환자들이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으려 시내권 응급실로 몰리면서 중증 응급환자의 긴급 진료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응급실 경증환자 이용률이 전국 57.6%인데 반해 제주지역이 61.1%로 높은 이유도 읍면 환자들의 이용이 주 원인입니다. 대정·안덕지역을 합쳐 야간·휴일에 시내권 이용 환자 수는 한해 수 만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대정읍 모슬포 중앙교회 인근에 들어설 민관협력의원은 41억여원을 들여 2022년 2층 규모 개원을 목표로 2~3개 외래진료시설, 물리치료시설, 방사선실, 약국 등을 갖춥니다. 의료장비로 초음파진단기·내시경·골밀도측정기 등 최신 장비로 진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첫 성공 모델로 키우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취약지인데다 입지적으로 대정에 안덕 주민까지 용이한 접근성으로 긍정적이지만 의원 경영의 선진화는 오로지 의료진의 몫입니다. 개원 초기 고급진료를 통한 경쟁력 확보, 서비스의 질 등이 관건입니다. 성공사례로 정착되면 다른 읍면으로의 확대 계기로도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대정읍 민관협력의원이 앞으로 질 높은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 열린마당

# "두 번째 지구는 없다"

**김 민 아**
서귀포시 안덕면 생활환경팀

기후 위기 문제가 심상치 않다. 타일러 라쉬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데, 고작 목소리 내길 주저하겠는가?"라며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세상 어떤 문제들보다도 인류를 위협해 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2018년 IPCC(기후변화 정부간 위원회)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기온은 앞으로 10년마다 약 0.2℃씩 올라 2030~2052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작은 수치변화로 말미암아 대다수 지구 생명체의 멸종을 예측하고 있다.

최근 집안에 10분간 소등을 하고 불이 꺼진 지구를 체험해 봤다. 저탄소 실천의식 개념으로 소등 체험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둠속 적막함이 '현재 지구를 대하는 우리들 환경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들이 기후변화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 속 나만의 작은 실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환경 전문가들은 모든 기후위기의 시발점이 '소비'라고 말한다. '소비'하기 때문에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그 무언가를 생산하고 사용하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현명한 '녹색소비'가 필요하다. 이 밖에 생활폐기물 재활용(4원칙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대중교통 이용을 일상화 등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탄소를 줄이는 현명한 작은 실천 방법들을 이행해 나감으로써 하나뿐이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뉴스-in

# "원 지사 발언, 역사적 사실과 달라"

### 서영교 행안위원장 반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20일 국정감사에서 "1934년 이후 독립군 만주 토벌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명.

서 위원장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사편찬위 자료를 근거로 당시 독립군 토벌 가담 세력의 활동 근거를 제시하며 원 지사의 주장을 반박.

서 위원장은 "원 지사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강조. 부미현기자

### '항노화사업' 발굴 본격

○…서귀포시가 지난달 30일 김해시청에서 열린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항노화연구에 착수.

노화연구·항노화사업 발굴 등을 위한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에는 서귀포시를 비롯 경남 김해시, 전북 순창군, 강원 정선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와 JDC·제주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대학·연구소가 참여.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노화연구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 현영종기자

### 합창단 지휘자 이번엔 뽑나

○…제주시가 지난달 21~23일 제주도립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 전국 공모 지원서 접수 결과 제주도외에서 총 24명이 응모했고 이중 3명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

2차 지휘 실기와 면접은 11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는 연내 지휘자 선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는 2018년 4월 전임 지휘자 임기 만료 이후 2년 6개월 넘게 공석으로 지난 상반기에도 공모를 벌였지만 최종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 진선희기자


## 부 고

**제주시농협 남양홍공 영건(하나로마트 노형점 근무)**께서 순직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11월 2일(월요일)
▶발인일시 : 2020년 11월 3일(화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제1분향실
▶장 지 :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부 인 김진주
아 들 홍찬혁
명준
딸 홍서진

※ 연락처 : 김진주 010-8986-0435

**제주시농협상조회**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제주고공 성규(향년 9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2일

부 인 박정실
아 들 고행준 며느리 김정희
형삼 임진혜
경민 김영주
딸 고행자 사 위 김영삼
행희 김성량
형숙 이남일
미정

##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성수(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2일

부 인 공융자
아 들 김영호 며느리 강금희
딸 김인선 사 위 부중철
희정
보은

##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0월 30일 임조합원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별"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새별 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86-1
대표이사 조 순 아

##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통

**제주 먹고사리뿌리와 둥글레뿌리**
텃밭 전.밭.식재 관리 수확안내
15㎏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용작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 조직변경공고

본 회사는 2020년 10월 30일 임조합원총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홀스앤"으로 조직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홀스앤 영농조합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번영로 1770
대표이사 전 호 청

##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이영열(1958. 12. 23생)
• 최후주소 : 제주시 서광로18길 5-19, 806호 (삼도일동, 금광아이빌)

상기자는 2020년 6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0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183호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서광로18길 5-19, 1002호 (삼도일동, 금광아이빌)

*송달장소 : 제주시 서광로18길 5-19, 1002호 (삼도일동, 금광아이빌)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주영, 변호사 이정언

2020년 11월 2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양윤미, 양윤숙

##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